



한국, 4일 유도서 첫 금 사냥...8·12일 금맥 터진다

조구함, 2013 대회서도 첫 금 선물...광주·전남은 5일 유도 김성연 금 기대

8일 양궁·사격·태권도 강제종목 집중...12일 이용대·손연재 빅게임 즐비

금메달 25개, 종합순위 3위. 광주U대회 한국 선수단의 목표다. 한국은 태권도, 유도, 양궁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서 무더기 금맥을 캔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사격과 배드민턴에서도 선전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대회 첫 금메달은 4일 유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공은 조구함(100kg 이하) 유력하다.

조구함은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에서도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광주·전남 선수 중에서는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5일 70kg급에서 가장 먼저 고향에 금메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자 유도의 간판스타 왕기훈(양주시청)도 이날 81kg급에 출전해 금맥 잇기에 나선다.

5일부터 금메달이 나오는 사격에서도 한국은 총 4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날 남녀 10m 공기소총을 시작으로 6일 남자 50m 권총 등으로 '금빛 총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7일부터는 태권도가 시작된다. 이날 태권도 품새에서 금메달 2개가 나오며 9일부터 겨루기 종목에서 금메달 주인공이 결정돼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8일은 한국의 '1차 골든 데이'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 강세 종목인 양궁·사격·태권도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양궁 리커브 종목에서 금메달 5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석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의 딸' 기보배(광주시청)와 최미선(광주여대)을 비롯해 강채영(경희대), 김우진, 구본찬, 이승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 한꺼번에 금맥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격과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추가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8일 하루에만 금메달 7개 안팎을 수확하게 된다.

9일부터 태권도 겨루기가 시작되면서 매일 '금빛 발차기'가 기대되고, 10일에는 남녀 탁구 단체전 결승전이 열리면서 구기 종목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에는 야구 결승전과 골프 남녀 개인 및 단체

전 최종라운드가 열리고 태권도에서도 금메달 2개 안팎을 기대할 만하다.

대회 막판인 12일은 빅 게임이 즐비하다. 화순 출신 이용대(삼성전기)가 이끄는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5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4개 이상을 따낸다는 목표다. 또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가 개인종합 결승에 나서고 태권도와 테니스 남자단식 정현(상지대)도 금메달 후보다.

13일에도 손연재가 종목별 결승에서 추가 메달 획득에 도전하며 여자핸드볼, 남자축구 등의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이 기대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파이팅 코리아~ 광주U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1일 광주 보라매축구공원에서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단, 하루가 짧다

프랑스·이탈리아 미인 수구선수들 염주실내체육관서 적응 훈련

멕시코·스위스 농구팀 광주고서, 호주·러시아는 살레시오 여고서 친선경기

광주U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각 국의 대표선수들이 광주에 입성, 적응훈련을 하며 메달을 향해 구슬땀을 흘렸다.

남자축구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하루 앞둔 1일 한국 남녀대표팀은 광주 보라매축구공원에서 가법계 발을 맞추는 훈련을 했다. 이들은 목포국 제구장과 강진훈련장 등에서 체력훈련과 세트피스 등 전술훈련을 끝낸 뒤 광주로 들어왔다.

야구 대표팀은 지난달 27일부터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몸을 풀었다. 사령탑 이진열 감독은 "16년만에 U대회 야구가 열린다. 준우승만 두 번했으니, 이번에는 우승을 노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표팀은 4일까지 KIA 타이거즈 3군과 세 차레의 연습경기를 가진 뒤 6일 오후 6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강호 일본과 첫 경기를 벌인다.

정현·정홍 형제가 출전하는 테니스 대표팀은 지난달 21일 테스트이벤트로 진행된 광주서킷대회에 참가, 전월국테니스장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남부대 봉대에·김고은 등이 참가하는 사격 대표팀도 1일 나주사격장에 모여 적응훈련을 하며 금메달을 정조준했다. 사격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권총 10m와 50m에서 우승

한 박대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국 선수들도 가볍게 몸을 풀며 시차와 경기 적응 훈련을 했다.

유도는 문성고체육관에서, 농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수피아여고 등에서, 수구는 염주수영장과 전남체육관에서 손발을 맞췄다.

유도는 프랑스·독일·베네수엘라 등 체격과 힘이 좋은 유럽이 강세다. 이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오전·오후로 나눠 몸을 풀었다.

멕시코와 스위스 농구 대표팀은 광주고에서, 호주와 러시아는 살레시오여고에서 친선 경기를 펼치며 현지 적응에 나섰다.

염주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 선수들이 하루 종일 훈련을 했다.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세르비아·중국·일본 여자 수구선수들이 아침 일찍부터 몸을 풀었고, 미국 남자 대표팀은 전남체육관에서 훈련을 했다.

개인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각자 훈련에 돌입했다. 베네수엘라 육상 대표팀은 광주체육관에서, 체조는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과 광주체육관에서, 펜싱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양궁은 염주양궁장에서 개인 훈련에 나섰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지난 1일 광주U대회 선수촌에서 호주 여자수구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U대회조직위 제공>

양궁 기보배



“홍보대사의 위엄 성적으로 보여줄 것”

4일 예선 시작...7일 컴파운드·8일 리커브 결승전

런던올림픽 2관왕인 양궁 여자대표팀 맏언니 기보배(27·광주시청)가 1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서로의 호흡을 하나로 만들어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에 도착한 기보배는 연습장소인 서해순 양궁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채영(경희대), 최미선(광주여대)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만큼 개인전에서는 팀 내 선의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기보배는 “최미선이나 강채영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범하다”면서 “저보다 높은 기량으로 선발된 선수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개인전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밝혔다.

그는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곳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은기간 스스로의 기술 감각에 중점을 두는 한편 바람 등 외부환경에 적응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대학원생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기보배는 어린 선수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웃음짓기도 했다.

이번 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기보배는 “광주에서서 유니버시아드가 열려 많이 부담스럽긴 하다”면서도 “광주 시민들에게 좋은 경기로 기억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개인적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양궁 경기는 4일 예선전을 시작해 7일 컴파운드 종목, 8일 리커브종목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기계체조 양학선



“부상 걱정 마세요...꼭 금 딸게요”

4~7일 광주여대에서 개인·단체 결선

“도마의 신” 양학선(수원시청)이 1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무조건 금메달만 목표”라면서 “기술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학선은 이날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에서 열리는 한국선수단 본진 도착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우승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이같이 밝혔다.

양학선은 2011년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2012년 런던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기계체조계의 간판스타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은메달에 그쳤고 세계선수권 3연패에도 실패했다.

양학선은 최근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 훈련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양학선은 그러나 “컨디션은 80%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면서 “광주에 오기 전날까지 훈련을 아예 안 했는데 와서 해본 결과 더 악화되는 느낌은 없다. 다만 이번 시합 때는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자신의 전매특허인 ‘양1’(도마를 앞으로 짚고 세 바퀴 비틀기) ‘양2’(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 반 비틀기)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안게임 때보다 허벅지가 더 나은 상태”라면서 “양1, 양2를 시도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U대회

- ▲축구 예선 1차전
 - 남 한국-대만 11시 영광 스포티움
 - 女 한국-체코 11시 나주 공설
- ▲수구 예선 1차전
 - 남 한국-브라질 20:00 염주실내수영장
- ▲배구
 - 남 한국-호주 15:00 염주종합체육관
 - 女 한국-중국 18:00 순천팔마체육관